

지켜라 (신명기 6:1-15)

살다보면 어려울 때가 있다.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언약이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을까 해서 주신 것이 언약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란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제목을 지켜라 라고 하였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니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약속이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정말로 간단하다. 오늘 말씀대로 네가 네게 말한 것을 지켜라. 그러면 축복하겠다. 간단하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고 응답받으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이다. 하나님은 이걸 지켜라. 응답하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키지 않고 응답만 받기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갈등이다. 고쳐지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는 날이다. 제 25차 선교대회에 맞춰서 우리도 최고의 선교현장에 있는 교회이므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주일이 되겠다.

성경의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다. 역사를 바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다. 진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관여한 사실을 바탕으로 썼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메시지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살아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상숭배 하지 말고 나를 섬기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항상 원칙으로 깔려 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이 원칙을 지키면 내가 문을 열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칙을 잘 안지키는 경우가 많아서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몇몇 복음 안에 남은 자들을 항상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항상 했다. 노예로 갔는데, 결국 전도자로 되어 버리고 시대적인 그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선교대회에 주제 단어가 70이다. 70인 제자, 70인 지역 이런 단어들이다. 70종족, 70나라와 같은 단어들이 주제였다. 상징적인 단어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외에 70인 제자를 세웠다. 이 의미를 살리면 될 것이다. 이런 단어들과 함께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향해 살면 하나님과 딱 맞게 되어 있다. 그것을 향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시대적인 응답을 주셨다. 굉장한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여성들에게도 이렇게 살때에는 아주 축복을 주셨다. 대표적인 몇사람중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다. 어머니로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어머니로서 이만한 축복이 있었는가? 모든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는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떤가? 한 시대를 뒤집었다. 사무엘이. 이런 축복이 어디있었는가? 어머니로서. 우리 어머니들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야 한다. 자식 바로 키워야 한다.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방향에 맞추니 완전 역전되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갔다. 기생이면 이상한 여성이다. 그런데 언약 잡았더니 온 가문 살아났다. 정탐꾼들과 약속했다.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놓아라. 그러면 이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라합은 자기 식구들, 아버지, 어머니, 온가족, 형제 자매를 다 불러서 집 안에 있는 것이다. 싹 다 죽었다. 사람 다 죽었고 짐승도 다 죽었다. 그런데 라합 가문만 살았다. 놀랍다. 이 붉은 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영적 문제이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미디어시대이다. 미디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된다. 그리고 237 시대이다. 전에는 동네에서만 잘해도 부자가 되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그 나라에서 1등가는 기업은 부자가 되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안된다. 남의 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이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세계에서 1등해지지 동네에서 1등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237 시대이다. 그리고 병 자꾸 생기니까 치유 이게 굉장히 올라간다. 앞으로 바이오 계통의 기업들, 다른데도 많이 가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대단해질 것이다. 그런데 특별한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런 회사 주식 사야 한다. 이런 시대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제목이다. 분명히 이런 시대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맞춰서 살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게 맞는 이 시대에 맞춰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 시대에 맞춰 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계획이다. 이것을 전부 다 할 수는 없다. 그 중에 한가지를 해야 한다.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말한다. 기도하고 내게 주신 이 시대를 향하여 사는 길을 잡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100년의 응답 받을수 있다.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인 것은 확실하다. 교회가 확 부흥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먼저 죽어가는 미국교회에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이 생각이 먼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우리가 만일 이 복음과 전도운동을 미국교회에 전달한다면 그것이 100년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천년의 응답이 될 수도 있다. 남미에는 우리 뿐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남미에도 시대적인 복음운동을 했다. 물론, 100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완전히 다는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선교사가 없다. 미국 교회가 잘 나서, 복음 안 받아들인다. 아주 똑똑해서 말만 많다. 개인주의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너무 자존심화 되어서 뭐라 말하면 자존심상해서 뭐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필요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를 찾으면 할 일 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것이 복음이다 성경적 전도다 라고 말하고 같이 할래? 한다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전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교회 한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가 내가 하는 말이 진리는 아니다. 분명히 큰 교회는 이 운동에 안 들어온다. 자기가 자신이 있고 그러면 뭐한다고 한국사람에게 배우는가? 가난하고 힘들고 하려고 하는데 안되는 그런 목사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도를 생각을 해야되고 함께 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전도자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 전도를 배워서 그분들에게 한명이라도 전달할것인가를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인들은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내게 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게 기도와 사명이다. 그래서 한사람 한사람 이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첫 번째 기도제목이다.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이 놀라운 것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려면 니가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한 것이다. 니가 할수 없는거 아니냐?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내가 주는 조건이다. 이것을 지키면 내가 하겠다.

1. 지켜라.

본문은 니가 이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것의 요약이다. 신명기는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하는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록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에 심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곧 너와 네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너의 날을 장구하게 하리라고 하셨다. 첫째가 누구인가? 너. 니가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니 아들, 지키게 해라. 그리고 니 손자 지키게 해. 뭘 지키나?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너 오래 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3절에 보면 듣고 행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니가 복을 받고 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것이라고 하셨다. 인생 큰 인생 되기를 다 원한다.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니 인생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축복과 약속의 대표적인 구절이다. 2절에는 지켜라 하고 3절에는 행하라고 하였다. 같은 뜻이다. 그래도 지켜라는 것이 더 포괄적인 뜻이 들어있어서 지켜라 하였다. 제목에는 지켜라 하고 첫째 대지는 지켜라 했는데 사전에 보니 같은 뜻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0절에는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니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면 니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니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참 놀랍다. 11절에는 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니가 공짜로 얻게 될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니가 파지 아니한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도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배불리 먹고 살거야. 이것을 지키면 이라고 하였다. 모세가 말한 율법, 규례, 명령 잘 지키면 가나안 이야. 딱 지키면 니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항상 잊지 않고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다.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다. 이방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귀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를 섬기라는 것이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를 지면에서 멸절할 실가 두렵다고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만일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냥 있지 않으신다. 아주 힘들어지거나 아주 난리가 나는 일들을 만드셔서 돌아오게 만드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이고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계속 뭔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대단한 에너지가

속에 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세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하튼 이거 지켜라. 그러면 축복한다. 이게 포인트이다. 그래서 규례와 명령인데, 그게 모세의 율법 전체를 말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공부하려고 하면 그게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희생제사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간단하게 전체를 아우르는 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2계명이 뭐가?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다. 우상 만들어서 절할 것인가? 아주 쉽다.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마음속의 우상이 문제이다. 계속 우상 생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이야기 하는 것이다. 3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욕하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사롭게 생각하는게 어떤 일이겠는가? 조금 원 일 있다고 해서 하나님 제껴버리고 내 혼자서 해버리는 것이다. 조금 바쁜 일 있으면 예배 빠져버려. 이것이 미국의 상당한 풍조가 되어 있다. 세상 풍조. 이런거 절대 하면 안된다. 나중에 후회할일 온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하다.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 너는 너 중심으로 살지마.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망하지 니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다. 너는 나를 예사로 생각하지 말아. 네 번째는 안식일 지키라는 것이다. 당연히 주일 지켜야지.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건 하나님도 이해한다. 누구나 주일날 예배 드리기 원하지만 못오면 자기가 제일 안타깝고 그렇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별일도 없는데 예배를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주일은 안지켜도 복은 받고 싶은 사람, 100프로가 복은 받고 싶어한다. 그러지 말고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5-10계명인데 이것은 유치원 수준이다. 남의 집것을 훔치면 되겠는가? 안된다. 그런데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영적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려야 한다. 그래서 십계명도 짐이 아니다. 이것을 지키면 내가 축복하겠다는 것이다. 아주 쉬운 일이다. 그래서 십계명도 복음이다. 짐이 아니다. 옛날에는 짐이라고 표현 많이 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모자라서 이것 지켜내는게 너무 힘이 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주일 성수를 이를 악물고 해서 어떻게 평생 하겠는가? 십계명도 너 이거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거야. 이게 메시지이다. 그리고 이 십계명 이걸 이야기 하면 율법 전체에 대한 사상이 다 들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것과 함께 이제 구약시대가 있다. 신약시대, 복음시대에 옛날과 같은 명령이 있다. 이걸 우리가 지키면 된다. 그것이 땅끝까지 가라는 것이다. 제자를 세우라는 것이다. 너는 렘넌트 운동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치유운동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 시작이다. 분명 내가 해야 하는 것 알고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작하라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이 메시지가 들어갔다는 것을 말한다. 메시지가 들어가면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간단한 일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답 주셨다. 지금 이 너무나 간단한 것, 너 이것 해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마음이 안들어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주신 것이다. 실제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내가 막 설쳐서 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하기 원하신다. 내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정말로 내 마음이 들어가서 내 진실한 기도제목이 되기를 바란다.

2. 말씀 중심

4절에서 9절은 메시지에서 많이 보는 말씀이다. 우리가 읽고 느꼈겠지만 이 명령,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니가 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는 뜻이다. 내가 하는 이 명령을 지키면 니가 이 땅에 들어가서 얻을 것이고 니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들을 얻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우물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니가 안파도 가면 있다는 것이다. 이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언약이 된 사람의 기도 형태이다. 본래 기도응답은 공짜이다. 나는 입으로 말했는데, 실제로 나타났다. 이게 기도 응답이다. 성음을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가? 할 필요 없다. 공짜로 주는 것이다. 니가 할 것은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을 니 마음에 담아라. 언약이 되는 것 외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니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 감람나무, 그것 때문에 니가 배불리

먹고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생명경로 지켜라, 따라와라. 그것이 4-9절이다. 6절에는 니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였다. 7절에는 이것을 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 있을 때에라든지 누워있을때든지 일어날때까지 니 아이들에게 강론해라. 그리고 8절에는 이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아라. 그리고 이마에도 붙여라. 이마에 붙여 써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그 만큼 하나님 절박한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니가 이것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건데, 왜 이것을 안하고 축복만 바라나는 것이다. 그리고 9절에는 너의 집에도 붙여라. 기둥에도 붙이고 바깥에 사람들 다 지나가면서 보도록 붙여라. 그야 말로 말씀 24시 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하면 축복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24해라. 너 기본 행동을 위하여 십계명 지켜라. 너 기본 신앙생활을 위해서 10계명 지켜라.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하여 너에게 특별히 준 명령, 부활 메시지 4개, 너 이것 마음에 담고 지키고 237, 치유, 서밋해, 그러면 내가 너 축복하겠다. 어떻게 축복하나? 니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음을 주겠다. 니가 한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찬 집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우물 판적 없다. 그런데 남이 파놓은 우물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응답은 본래 공짜이다. 그리도인의 생활은 공짜이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 한다. 50% 정도. 그러면 사도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노력이 아니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오히려 핍박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여전히 일을 하지만 전에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일이 아니라 축복이다. 바뀐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이다. 내가 이 시대에 너를 위해 주는 명령 지키라는 것이다. 렘넌트 청년들, 여기에 인생 걸려 있다. 어른도 마찬가지. 하나님 부르신 그 날까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너 응답받고 싶냐? 이거 해라. 위하여 예배를 예사로 드리지 말아라. 왔다 갔다. 항상 말씀이 연약되어야 하고 그게 가슴에 안들어오면 왜 안들어오는지 이야기 해야하고 기도해야 한다. 수없이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이야기 듣고 세계 복음화,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데 왜 이것이 내 마음에 하 나도 안 들어오나 지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것 말고는 기도제목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견하고 기도제목 되기 바란다. 인생의 답 아닌가? 다른 것을 답으로 잡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것이다. 니가 건축하지 않은 성을 주겠다. 지역이다. 니가 만일 이 시대를 두고 내가 명령한 명령 안으로 들어오면 니가 건축하지 않은 성을, 이 지역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이게 70인 제자, 지역 아닌가? 만일 미국에 이 복음을 전달하면 100년의 응답 넘는다. 선교주일인데, 진짜 생각해보고 언약잡고 이 대열 안에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걸 위해서 경제 아닌가? 니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내가 심어서 포도원이 잘되어서 놀라운 축복인데 심지도 않았고. 그것을 준다는 것이다.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찬 집을 내가 공짜로 너에게 준다는 것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조건은 뭐가? 너 이거 지켜라.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미국복음화, 남미 복음화, 여기에 인생 던져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준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따위 하나님이나 할 수 있다. 어쨌서 우리는 죽이고 자기 백성에게 다 나눠주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이유 있다.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이유.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렸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그런데 왜 나를 안 믿고 귀신을 믿느냐? 그래서 너 벌받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충분한 이유이다.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다 받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내 백성에게 다 줄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에게 이 축복 언약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빛의 경제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이것 하고 싶는데 안된다고 기도 시작해라. 여기에 평생을 거는 것을 보고 올인이라고 한다. 이 올인은 하면 할수록 그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찬 집이 나에게 더 온다. 나는 파지도 않았다. 저가 파봤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내게 오는 것이다. 이것이 발견이 되어서 성음도 얻는 것이다. 이 성음, 지역을 얻다 보면 종족도 얻고 나라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이다. 이것 말고 가치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를 향하여 살면 내가 니 인생을 축복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니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얻었다면 다 된거지 안그런가? 그 지역에 우물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노력해서 파서 얻어도 응답이다. 그런데 손도 안댄 우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선교에 대해서 가슴이 통하는 주일이 되기 바란다. 그리고 이런 저런 이유 붙여서 신앙생활 이상하게 한다면 그 자리에서 뒤집어야 한다. 그리고 진짜 한번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를 축복한다.